

# 日本에 遺存하는 李朝寫經

權 熹 耕

高麗朝가 祈禱佛敎를 國敎로 했던것과는 달리 太祖 李成桂는 排佛政 策을 써서 佛敎를 탄압하고 儒敎를 國是로 삼았었다. 그러나 佛敎는 여전히 王室과는 깊은 關係를 맺고 있었으며 民間信仰으로써의 뿌리 또한 깊었었다(註①).

이같은 與件속에서 功德의 意味를 크게 지녀오게된 寫經은(註②) 李朝初期는 물론 李朝中期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製作되었으리라 思料된다. 李朝寫經中 年記가 없는것은 高麗寫經과의 區別이 어려워 종종 高麗寫經으로 혼동을 빚고 있다. 年記가 없는 것 중에서도 卷首書가 있거나 變相圖가 그려져 있는것은 그래도 判別이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은 高麗忠烈王 以後 金銀字院이나 銀字院에서 製作되던 寫經의 變相圖에서 보여지던 華麗, 纖細한 描線은 사라지고 그림의 內容 역시 略化되 는 경향이 있다. 즉 高麗寫經에 그려지고 있는 變相圖가 後期에 이르러 지극히 圖式化된 후에도 佛書에서 보여주던 얼굴표정의 豊富함이나 衣文의 섬세한 휘날림의 유연한 線을 잃지 않고 있는데 비해(註③) 李朝의 寫經들은 이와같은 섬세함이 사라지고 描線이 경직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李朝寫經들의 이같은 特性的인 考察은 뒤로 미루고 우선 日本에 現存하는 李朝의 寫經중 筆者가 確證한 몇點만을 所介코져 한다.

能淨一切眼疾病 陀羅尼經(圖1)  
品質·紺紙金泥

形狀·俚原裝折本裝  
漢字와 더불어 한글 音有  
卷首書有

法量·縱九·三センチ 橫一

開幅 十二、三センチ

(總길이 一三八·六

センチ) 卷首書 縱九·

三センチ 橫 一八·五

センチ、一開一四行、

一行一一字。

經箱·內箱 漆塗 蓋表에

金泥로 「聖廟御眞跡

陀羅尼經」이라고 의

여져 있음。

▲外箱 蓋表에 墨書

로 「普公眞筆一幅書

類添」이라 의여져있

음。

所藏者·黑田家(현재 福岡

縣文化課보관)

이 寫經에서 먼저 特記

할만한 사실은 漢字와 한

글 音을 併記하고 있다는

점이다。

發記가 없어 확실한 年

代는 알 수 없으나 한글 音

에 四聲點이 남아 있는 것

으로 봐서 王亂前에 寫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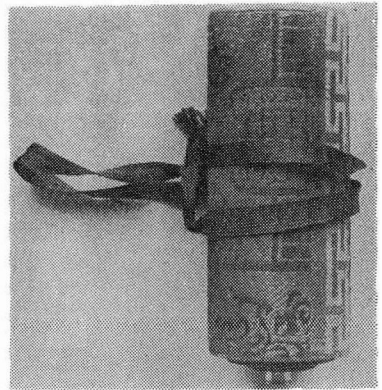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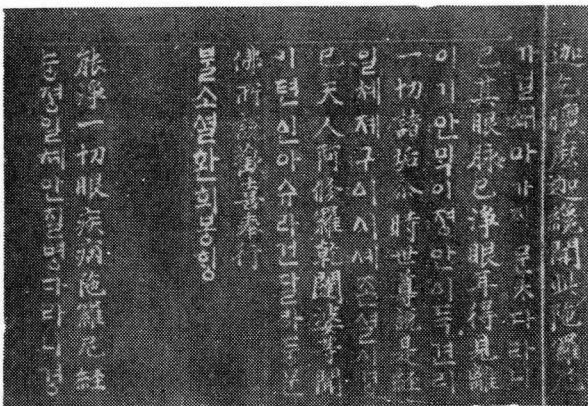


圖1 能淨一切眼疾病陀羅尼經

된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關해서 國語學者 俞昌均教授(啓運大)는 『李滉이 쓴걸로 보이는 陶山書院板 四書諺解와 같은 漢字音인 것으로 봐서 李滉生存時 즉 明宗·宣祖初의 資料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이 寫經이 日本으로 건너간 경위는 확실치 않으나 所藏者였던 黑田은 壬亂때 出征했던 將軍이었던만큼 대략 그 年의 것이 아닌가 본다.

卷首書로써는 釋迦眷屬圖가 그려져 있는데 高麗寫經에서 보여지는 圖式化된 속에서도 華麗 섬세할 필치는 보이지 않으며 地雲과 일곱의 표정 등의 描線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寫經에서 한가지 재미나는 사실은 두정의 表面에 「菅公眞筆」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菅公이라고 記載된 人物은 日本 平安時代の 著名한 政治家일뿐 아니라 儒學의 巨頭로써 後代 日本의 文學의 神으로 또한 教育의 神으로 崇仰되어온 菅原道眞(八四五年에서 九〇三年까지 生存)를 稱한 것이라 여겨진다. 한글 音이 아니라면 그대로 菅原道眞의 眞筆로 계속 전해졌을지도 모른다는 點을 附記해 두고져 한다

天尊玉樞寶經(圖2)

品質·紺紙金泥

形狀·折本、卷首書有

法量·縱一·七센치 橫八·九센치 一開一〇行一行一〇字。

所藏者·日本福岡縣太宰府天滿宮

이 寫經 역시 經箱과 表紙에 「菅原道眞御親筆」이라 적혀져 있다.

그러나 이 寫經도 「能淨一切眼疾病陀羅尼經」과 거의 같은 年代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점으로써는 卷首書가 「能淨一切眼疾病陀羅尼經」과 그 「모티프」에 있어 닮아 있고 地雲과 台座의 表現樣式이 類似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天尊玉樞寶經」이 언제 어떤 경위로 日本에 건너갔는지에 대해서 역시 알 수 없으나 단 太宰府天滿宮이 이를 入受한 후 經箱의 蓋表에 「菅原御親筆」이라 써 둘 만큼 貴重品으로 여겼던 점은 의심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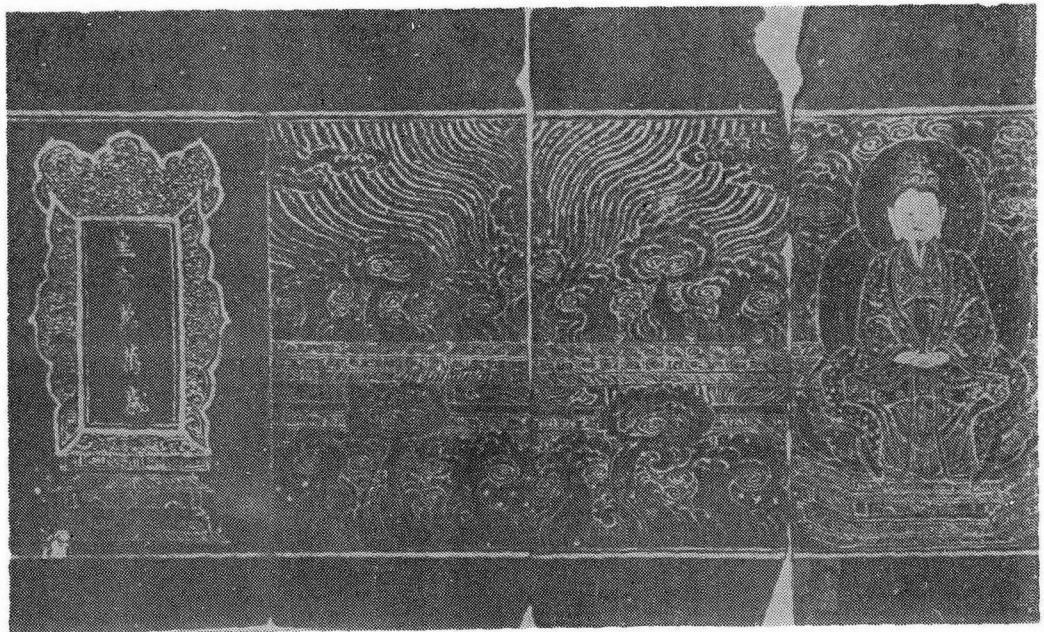


圖2 天尊玉樞寶經



圖2 天尊玉樞寶經

지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寫經의 卷首畫와 跋은 「能淨一切

眼疾病陀羅尼經」도 이에 依

存하여 「菅公御親筆」이라 한 것

이 아닌가 하는 推測도 可能한

일이다.

또한 이 寫經은 「能淨一切眼

疾病陀羅尼經」이 調査되기 전

까지만 해도 「菅原道眞」의 貴重

한 遺品으로써 太宰府天滿宮에

서는 太宰府品目中에서도 특히 깊이 보관되어 왔었다.

說相十六觀經(圖3)

品質..紅紙金泥

形狀..折本, 卷首와 卷尾缺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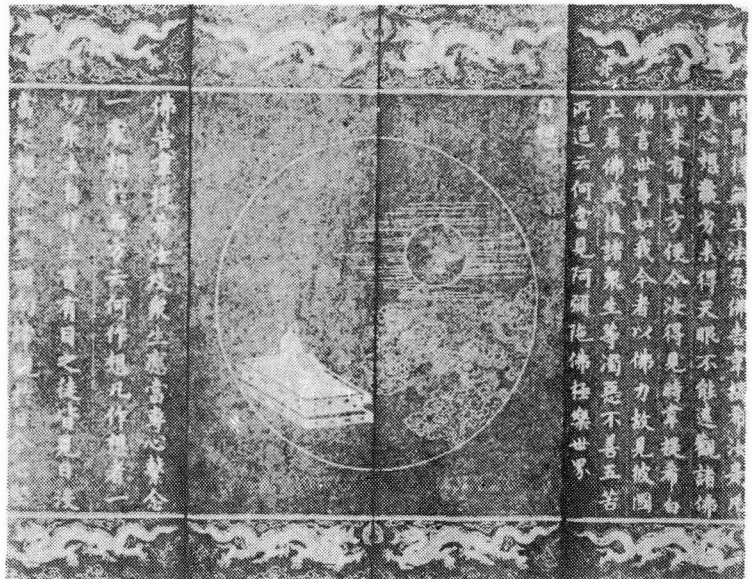


圖3 說相十六觀經

法量..縱三七·二センチ橫一一·四センチ

天地二七センチ 一開 一二行 一行一六センチ 總三七開。

跋語..金字古經有數種、或有書藍紙者、或有書紫紙者、或有書白紙者、而書紅紙者甚罕、東京大養寺祐學和尚、藏紅紙金字阿彌陀經一卷、筆

法學體、千歲以上物也、余曾請求十六觀經一卷於城南寶生庵說禪和尚、紅紙金字 每一觀畫說相、如縷妙究毫釐、絲欄外上下畫雲龍金色煥爛、光采奪目、只惜、此卷尾缺佚、今僅存十觀耳、至其書畫精巧、非筆舌所能盡也、傳云、唐玄宗帝所書、未知果然否 或曰 帝王書必描麟鳳龜之類爲莊飾、此卷可以爲證焉、明治十二年十月下院華頂山松翁。

所藏者..日本京都知恩院

이 寫經은 經文 가운데 그 經文에 해당하는 圖像이 그려져 있는데 卷尾의 缺損으로 十六觀想중에 日想、水想、地想、樹想、池想、總想、華座想、像想、偏觀想、觀音想인 十觀想만이 남아있다 跋語의 記錄과 같이 이 寫經은 縱이 三七·二センチ나 되는 大型의 紅紙에 金色 燦然하게 되어져 있다. 天地線의 外部上下에는 雲龍이 그려져 있다.

經文中에 圖解의 그림을 그려넣은 것도 희귀한 예이지만 觀想畫의 樣式이 高麗寫經의 卷首畫와는 判異하게 달라 李朝寫經이 아닌가 생각된다.

大方廣佛華嚴經卷 六十七과 六十八

(圖 4)

品質..白紙墨書

形狀..折本、表紙木板(後代에 새로 만든 것임)

法量..縱三一·三センチ 橫二五·〇センチ

一開二十四行 一行一七字(本來

는 一開 一二行)

內書..大方廣佛華嚴經第六十七 大和寧國藏  
所藏者..日本京都博物館

이 寫經은 本來 一面六行에 一行一七字의 折本寫經의 一般의인 樣式 그대로 製作되었던 것이 後代에 와서 두면을 한면으로 만들어 木板의 表紙를 새로 입힌 것으로 보인다. 즉 現在는 一面이 一二行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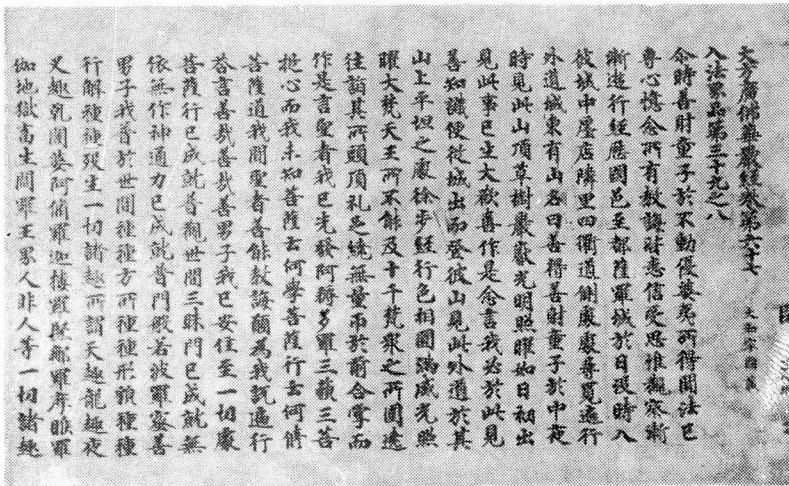


圖 4 大方廣佛華嚴經卷六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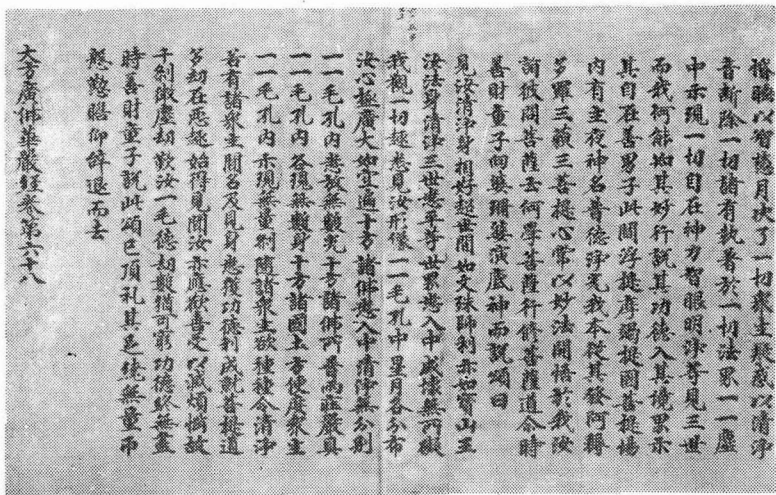


圖 4 大方廣佛華嚴經卷六十八

으나 六行마다 본래의 접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京都博物館에서는 이 寫經을 高麗寫經으로 分類하고 있으나 內書에서 보인 大和寧國藏이란 記錄으로 봐서 朝鮮王朝期의 作品이라 史料된다.

太祖李成桂는 一三九二年 七月二十八日 즉위식을 갖고 당분간 國號를 그대로 高麗로 稱하다가 權知高麗國事라는 신분으로 趙琳을 明에 보내 새로운 王朝수립을 승인 받는다. 그후 다시 密直司事 韓尙質을 보내 「朝鮮」과 李太祖의 出生地인 「和寧」 둘중 하나를 國號로 擇定해 줄것을 明太祖에 고해 「朝鮮」이란 國號를 받고 一三九三年(太祖二年二月一日) 부터 「朝鮮」이라 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和寧에 대한 記錄은 이 보다 앞서 太祖 李成桂가 한창 활약하던 시기인 高麗末의 古文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註④) 여기서 大和寧國이라고 記錄되고 있는것은 高麗末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李氏朝鮮이 수립된 후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理由로써는 먼저 太祖 李成桂는 王朝를 수립한 후에도 民心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당분간 高麗란 國號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후 明으로부터 國號를 받은 후에도 八年間(一四〇一) 國王의 명칭을 받지 못한 時期가 있었다는 點을 감안할때 비록 公式的으로는 朝鮮이라 했어도 和寧國으로도 꽤 오랫동안 불리어지지 않았나를 想像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寫經斷片(法華經奧書)(圖5)

品質..紺紙銀泥

形狀..折本, 卷十六如來壽量品卷尾와 奧書

法量..縱三〇·六センチ 橫五三·三センチ

奧書..定社臣益安大君芳毅竊荷

祖宗毓慶之蔭早□□鼎食

恩庇罔極恩厥以憑茲

覺皇慈援圖報其萬一端

太上殿下壽等躋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

上王殿下永與大妃長亨五福

主上殿下負辰億萬春秋

靖妃殿下椒闈衍慶金枝永茂

元子千秋宗室康寧臣忠子孝國治民

樂次願已躬并同室貞惠翁主崔氏兼

及一家日子曰女現增壽福當生藥鄉

敬捨淨賄銷銀染楮騰寫蓮經用以流

通讀佛慧命轉利無窮俱——云云

所藏者..日本京都博物館

이 寫經은 如來壽量品の 卷尾一部와 奧書만이 남아있다. 所藏者인 京都博物館에서는 이를 高麗寫經으로 時代區別을 지우고 있으나 奧書에서 보여 주듯 李朝王室과 관계되는 太宗朝의 寫經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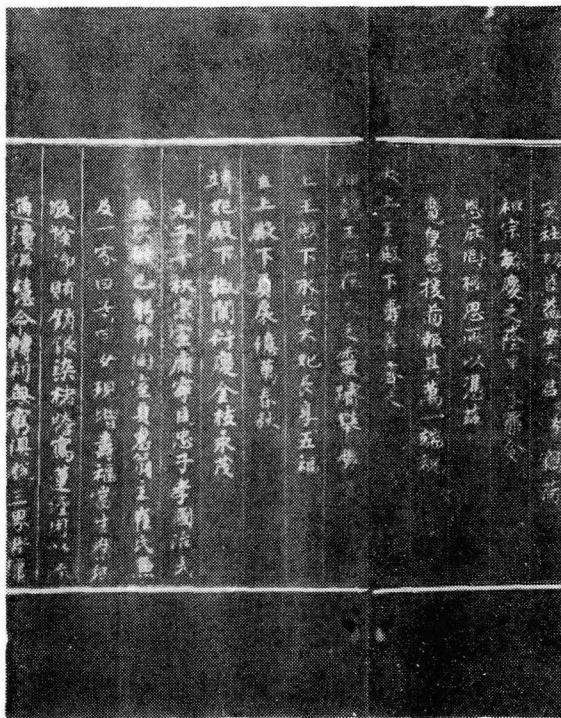


圖5 寫經斷片(法華經奧書)

이는 定宗 즉위와 더불어 十八名의 定社功臣에 끼이게 된 太祖의 第三子 益安大君 芳毅가 부처님에게 그 功을 圖報함과 더불어 太上殿下의 壽를 빌고 神懿王后의 훈령을 위로하며 上王殿下와 그妃의 五福과 主上殿下의 億萬春秋와 靖妃의 福樂을 빌고 더불어 元子の 千秋무강과 宗室의 康寧을 그리고 그 위에 太宗의 喜嬪安氏 出貞 惠翁主와 益安大君 自身の 妻 崔氏와 宗室一家의 壽福을 빌기 위해 재물을 회사 紺紙銀泥의 蓮華經을 寫成했다는 內容으로써 宗室의 寫經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斷片이긴 하지만 이 寫經은 李朝王室이 外的으로는 排佛의 기치 아래 있었지만 內的으로는 실마나 같이 佛敎와 결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例證의 하나로 더욱 意味있는 資料라 할 수 있겠다.

以上은 筆者가 日本서 確認한 李朝寫經들이다.

이 以外에도 아직 많은 高麗와 李朝의 寫經들이 日本國內에 散在해 있었으리라 思料되나 特히 京都以北은 재정관계상 調査를 다음 기회로 미루었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寫經이 어느정도 存在하고 있는지 가늠할 難했다. 앞으로 學界의 觀心속에 보다 광범위한 調査가 이루어 지길 기대해 마지않는 바이다.

日本에 現存하는 高麗, 李朝寫經의 調査研究에 있어서 日本九州大學,

## 考古美術—뉴스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三次會議

一九七七年 四月 一六日 午後二時 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金斗鍾 金元龍 崔淳雨 鄭慶雲委員과 文化財管理局長이 참석하고 金斗鍾委員長의 司會로 會議가 개최되었다.

- 1 本委員會 第二次 會議錄을 報告하여 異議없이 通過함
- 2 佛國寺 境內 콘크리트橋梁을 花崗石橋梁으로 擴張設置하고 佛國寺 극락전과 主持室 사이에 자연 석 마돌 垣牆을 設置토록 許可하였음을 報告함.
- 審議決定事項
- 1 文化財 指定
- 가 關門城 追加 指定
- 慶北知事가 申請한 史蹟第 四八號 關門城追加指定은 申請案대로 追加 指定키로 審議決定함.
- (1) 所在地: 慶北月城郡 南面 新岱里 山三〇五의 一
- 三〇五의 一
- (2) 申請人: 慶尙北道知事
- (3) 追加 指定 事由
- 既 指定된 關門城으로부터 東으로 약 六二〇m 지 山頂上에 烽燧臺의 遺構가 있고 그곳에서 東南편으로 약 五七〇m 지점에 本城(追加, 指定對象)이 있어 關門城과 연결된 城으로 追加 指定함.
- (4) 追加 指定 對象
- 月城郡 陽南面 新岱里 山三〇五 一 番地 所在 城廓 (一, 五〇〇m) 및 同區域(四一, 四〇〇坪) 斗山三〇五의 二 番地 所在 烽燧臺 및 同區域(一, 二〇〇坪)

美學美術史研究室의 協力에 感謝하며 특히 공개를 꺼리는 個人所藏品의 調査에 있어 적극 협력해 주신 京都의 源豊宗先生과 九州大學 美學美術史研究室의 平田 寬助教授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

### (註)

- ① 震檀學會著「韓國史」第三、四卷參照
- ② 韓國美術史學會刊「考古美術」一三二號의 筆者의 論文「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參照
- ③ 韓國美術史學會刊「考古美術」二三二號의 筆者의 論文「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參照
- ④ 韓國史研究會刊「韓國史研究」第十六集의 許興植氏의 論文「國寶戶籍」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중에

『洪武貳拾參年庚午拾貳月 日 德興部戶國柱帳施行 東面德興部

事 審奮忠定 難匡復 變理 佐命 功壁上三韓 三重 大臣 門下 侍中 判都評議使 司事 史曹 尙瑞 寺事 領孝 思觀 事 兼入 佐上 護軍 領經 筵事 和寧 府王 聞國 忠義 伯食 邑壹千戶 食實 封參百戶 李成桂』라는 藏書閣所藏 國寶 一三二號가 判讀되어 있다. 洪武貳拾參年은 恭讓王二年에 해당하며 이때 벌써 和寧府王이란 記 錄이 보이고 있다.

〈慶北大學校 博物館·美術史專攻〉